Warm heart & Cool head

ECONOMICS NEWSLETTER 제 30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윤 택 / 편집인 : 박지형 / 편집조교 : 정진용 / 발행일 : 2014년 1월

The 21st SJE International Symposium



▲ Kaushik Basu 박사의 특별강연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로 '제21회 SJE (Seoul Journal of Economics) International Symposium' 이 2013년 9월 3일 본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인도 경제성장의 분석과 전망: 한국-인도 경제협력에의 시사' 를 주제로 총 세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우리 학부 이영훈 교수와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우리 학부 양동휴 교수가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세션은 'Engines of Growth in India & Korea' 를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인도 푼자비大(Punjabi University)의 락휜더 씽(Lakhwinder Singh) 교수의 "State,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A Comparative Perspective from India and South Korea" 발표를 시작으로, "India's Economic Catching-up Growth by Leapfrogging into IT Services"라는 주제로 우리 학부의 이근 교수와 인천대 옥우석 교수가 발표를 이어나갔다. 점심시간에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부총재(Senior vice president)인 카우쉭 바수(Kaushik Basu) 박사가 'Social Found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sia's Growth Experien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사회를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Korean Frims and FDI in Indian Market' 를 소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 인도 푼자비大의 아니타 길(Anita Gill) 교수가 나서 "An Analysis of South Korean FDI in India"를 발표한 이후, "An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in South Korea and India"라는 김영신 박사(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와 "How Samsung becomes the leader in Indian Consumer Electronic Industry"라는 정무섭 교수(동아대)의 발표가 이어졌다.

우리 학부의 김봉근 교수 사회로 시작된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Engines of Growth in India & Korea' 라는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동경大 카주유키 모토하시(Kazuyuki Motohashi) 교수의 "International

2페이지에서 계속

이영훈 교수 제9회 경암학술상 수상



우리 학부의 이영훈 교수가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9회 경암학술상(인문사회)을 수상하였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은 부산 향토기업인 태양그룹 송금조 회장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만든 순수 공익재단으로, 인문 · 사회 분야, 자연과학 분야, 생명과학 분야, 공학 분야 등 4개의 전공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한 학자와 예술가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기리고자 2004년부터 '경암학술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분야별 5~7명씩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57명의 추천자를 심사한 결과, 이영훈 교수(인문 · 사회 분야), 장석봉 교수(자연과학 분야), 이민구 교수(생명과학 분야), 백점기 교수(공학 분야), 김대중 고문(특별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영훈 교수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의 기간 동안 노비제를 포함한 신분제, 농민경영, 토지제도의 역사적 추이 및 그에 따른 국가지배체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하여 자유소농체제가 18세기에 이르러 성립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우리 역사에서 사실상의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과정을 밝히고, 18세기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 이후 19세기 조선사회가 겪게 되는 총체적 위기를 물가, 지가, 임금, 토지 생산성의 시계열 데이터를 망라한 수량경제사적 분석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량경제학의 방법론을 한국경제사에 적용해 한국사학계가 하지 못했던 장기 수량 경제사에 독보적인 업적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료들을 발굴해 냄으로써 경제사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사 연구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가능하게 한 탁월한 연구자로 평가받았다.

김선구 교수 제32회 다산 경제학상, 이지홍 교수 제2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



경제학부 김선구, 이지홍 교수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다산경제학상'과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다산경제학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제민 정신과 실학사상을 기리며 한국의 올바른 경제학풍을 정립하고 고양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이후, 한국의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한번 꼭 받아보고 싶은 영예로운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려대 남종현 명예교수는 2013년 제32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김선구 교수를 선정하면서, 최근 미시경제학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경제학' 분야 중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설계하고,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수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연구역량을 기울여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김 교수의 연구 논문들은 『Econometrica』를 비롯한 여러 세계 일류 학술지에 발표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대학의 박사과정에서 교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학자의 연구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또한 2012년에 신설돼 올해 두 번째로 수여되는 '제2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로 이지홍 교수가 선정되었다.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은 유망한 젊은 경제학자를 일찍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이들을 격려하고 주위 동료 학자들에게도 선의의 자극을 주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제1회 수상자로 우리 학부의 이석배 교수가 선정된 바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남종현 교수는 이지홍 교수를 올해의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이 교수가 비대칭적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간의 반복적 협상에서 제 3자 개입 가능성이 존재할 때 그것이 협상태도 및 이익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손익의 유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산출된 논문들이 『Econometrica』 등 주요 저널을 통해 발표됐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이런 이 교수의 수준 높은 연구 활동과 장래성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INDEX ❶ 경제학부 주요소식 ❸ 교수수상 및 동정 ❹ 교수 신간 안내 ❺ 신임교수 인사말 ❻ 동문기고 ❼ 재학생기고 ❾ 동아리소개 ❿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⓫ 경제학부단신 ⓬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경제학부 학술행사

2013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서울대 경제학부(BK21 플러스),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추격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3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가 '발전, 체제, 정치 경제학의 최근 동향과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2013년 11월 22일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두 세션(전체 세션, 학회별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학부 이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서강대 김시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전체 세션에서 우리 학부 이근 교수가 "경제발전론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표하였고, 이어 우리 학부의 김병연 교수가 "비교경제체제론의 최근 동향"을, 류동민 교수(충남대학교)가 "정치경제학의 최근 동향"을 각각 발표하였다.

각 학회별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의 한국경제발전학회에서는 먼저 주상영 교수(건국대학교)와 전수민 교수(건국대학교)가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어 우리 학부의 이근 교수와 샤니카 라마나야크(Shanika Ramanayake) 박사가 "An Adding-up problem & Wage-productivity dynamics in exports &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facing the middle-income trap"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박복영 교수(경희대학교)는 "발전경제학과 국제원조의 진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경제학회에서는 김정훈 교수(호원대학교)가 "소득 재분배: 부재분배, 모의실험적 비교" 연구를 발표하였고, 장상환 교수(경상대학교)가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비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뒤이어 김어진 교수(경상대학교)가 "삼성과 애플 경쟁을 통해 본 지식경제기반의 모순"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한국비교경제학회에서는 정영화 교수(전북대학교)가 "북한의 2014 선택: 시장경제 혹은 외래지대국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종규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북-중무역의 쟁점과 결정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실사구시 한국경제와 정책 대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특별 세션으로 막을 내렸다.

2013 기술경영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사) 기술경영학회가 주최하는 '2013 기술경영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동아시아 R&D 네트워크의 역할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2013년 11월 1일 본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과학, 기술 및 R&D 등과 관련하여 일반 연구자들과 함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도 참여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박영일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이 지식재산(IP)과 혁신전략, 산업 R&D, 기술혁신, 기업전략, 수준평가 및 분석, IT 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오후에도 기술거래 및 전략개발, 제도 및 기술활성화, ICT 및 산업경제, 혁신 및 성과분석, 창조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논문 발표가 이어졌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지식재산권과 크라우딩펀드 사이언스,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한 세 개의 특별세션이 구성되어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Korea-Denmark Joint Workshop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서강대학교 SSK팀, 덴마크 아알보그大(Aalborg University)가 공동주최한 'Korea-Denmark Joint Workshop'이 '한국과 덴마크에서의 산업 동학과 혁신(Industrial Dynamics and Innovation in Denmark and Korea)'을 주제로 지난 10월 23일 본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 워크샵은 서울대 경제학부와 덴마크 아알보그大 경영학과(Department of Business and Managemen)의 교수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한국과 덴마크의 경제성장과 혁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우리 학부 이근 교수와 아알보그大의 아스트리드 헤이드만 라쎈(Astrid Heidemann lassen) 교수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은 "Firm Dynamics in Denmark and Korea"를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이근 교수 사회로 이루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 우선 덴마크와 한국의 고도성장 기업에 대해 라쎈 교수와 박정수 교수(서강대학교)의 발표가 각각 이루어졌고, 이어 박은경 박사(Aalborg University)가 "Outsourcing as a means to growth"를, 김건하 교수(명지대학교)가 "NPD framework for Marketing and Techanology"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Global Excellence in Catch-up and Industry"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우선 우리 학부의 이근 교수와 곽주영 교수(연세대학교)가 "Globally successful SMEs from Korea"를, 그 뒤를 이어서 아알보그大의 올레 매드슨(Ole Madsen) 교수와 시몬 보에그(Simon Boegh) 박사가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 robotics"를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최진아 교수(명지대학교)가 "Leapfrogging in a Transnational Industry: The Case of AmorePacific, a Korean Cosmetics Company"를 소개하였다.

1페이지에 이어서

division of Innovative labor: a case of automotive industry and growing importance of India" 발표로 시작되어 인도 푼자비大의 인더짓 씽(Inderjeet Singh) 교수의 발표 "Services Sector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India-South Korea Economic Cooperation"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인도 푼자비大의 숙휙더 씽(Sukhwinder Singh) 교수의 "India's Labouring Poor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 Critical Evaluation of Social Security Schemes and Alternatives" 발표로 막을 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다루고



한국과 인도의 경제협력을 다루어 의미 있는 토의가 이루어져 높이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 여덟 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인도, 일본의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가 다루어져 연구자들이 폭넓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수수상 및 동정

이지홍 교수 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



경제학부 이지홍 교수의 논문 "Gambling Reputation: Repeated Bargaining with Outside Options (Qingmin Liu 공저)"가 2013년 7월에 경제학계에서 최고의 학술지로 손꼽히는 『Econometrica』에 게재되었다. 이 교수의 논문은 정보를 가진 한 명의 장기 플레이어(long-run player)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진 연속적인(subsequent) 단기 플레이어(short-run player) 사이의 반복 협상에서 불완전한 정보와 외부대안(outside option)이 협상자세와 이익분배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 간 할인계수(discount factor)가 '1'로 수렴할 때와 외부대안의 정보성이 분산되어 있을 때의 균형이 어떤 변화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김봉근, 이철인 교수 경제학부 신임 부학부장



김봉근 교수 이철인 교수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년간 각각 경제학부 교무부학부장, 학생부학부장을 역임했던 김대일, 김영식 교수에 이어, 2013년 8월부터 김봉근 교수, 이철인 교수가 각각 경제학부, 교무, 학생부학부장을 맡게 되었다. 김봉근 교수는 2002년 미국 미시건大(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009년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고,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경제학과 발전경제학이다. 이철인 교수도 1996년 미국 미시건大(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9년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고,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경제학과 재정학이다.

김인준 교수 명예교수 임용



김인준 교수가 2012년 9월에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임용되었다. 김인준 교수는 1980년 본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2013년 퇴직하기까지 33년간 수많은 연구업적과 교육성과 및 행정적 업적을 남겼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국제수지론, 국제금융론 등의 강의를 통해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국제경제론』, 『자본 자유화론』, 『국제금융론』, 『대한민국, 경제학에게 길을 묻다』,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xperience』 등 19편의 국·영문 저서와 "개방경제하의 금융 환율정책", "외환-금융위기와 IMF경제 정책평가", "금융국제화와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금융부문" 등 33편의 논문을 통해 우리 경제학 연구가 선진국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학술활동과 더불어 한국선물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학의 학문적 발전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기여하였고, 본교 세계경제연구소장, 경제학부장, 사회과학대학장, 금융경제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학교 발전에도 공헌한 바가 크다.

주병기 교수 '2013년도 글로벌 창의·융합 연구자'로 선정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글로벌 창의·융합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부터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나타낸 교수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를 포함하여 8명의 창의·융합 연구자를 선정하였다. 글로벌 창의·융합 연구자 지원사업은 우수한 연구성과 및 연구업적을 통하여 높은 발전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연구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창의·융합 연구자'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학문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석학을 배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학생 수상소식



▲ SNUPI팀 수상 모습

서울대 경제학부 4명으로 구성된 SNUPI팀(박범기(팀장), 이수현, 최봉준, 최지원, 지도교수: 윤택 교수)이 '201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1위인 금상을 수상했다. 이 4명의 학생은 모두 사회대 경제학부 동아리 SFERS(SNU Financial and Economic Research Seminar) 소속으로 매년 동아리원들끼리 팀을 구성해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에는 전국 69개 대학교, 91개 팀이 참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예선을 치러 모두 10개 대학교,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고, 8월 27일 개최된 전국결선대회에서 서울대 SNUPI팀이 금상을 수상하였다.

교수 초빙



경제학부는 2014년 3월부터 최연구 교수를 초빙한다. 최연구 교수는 1991년 미국 스탠포드大(Stanford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위스콘신大(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조교수로 부임하여 정교수까지 올랐고, 2005년 이후 미국 콜롬비아大(Columbia University)에서 정교수 및 Kevin J. Lancaster Professor of Economic Theory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 및 매칭(Matching) 이론으로 초빙 첫 학기인 2014년 1학기에는 대학원에서 '고급경제이론연구(부제: 마켓디자인)' 과목을 강의할 계획이다.

서울대 SSK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 연구단,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소로 선정

서울대학교 SSK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 연구단(소장: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이 2013년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우수연구집단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단은 사회 통합이 장기적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배제는 국가경쟁력을 잠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사회의 건설,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주요 연구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 설립한 "분배정의연구센터"를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주제에 관한 세계적 연구중심이 되도록 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교수 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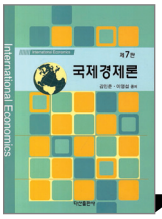
경제학원론 (제10판)



조순, 정운찬, 전성인, 김영식 지음
율곡출판사 (2013년 08월 26일 출간)

이 책이 1974년 3월에 첫 출간된 지 40년이 된다. 이번 제10판 개정은 먼저 경제학의 일관된 논리 전개를 위해 '경제학 들어가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으로 구성된 각 편 및 장의 목적과 상호 관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기본 개념과 이론 또는 모형을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였으며, 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와 해외의 통계자료, 사례, 제도 및 정책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예시하였다.

국제경제론 (제7판)



김인준, 이영섭 지음
다산출판사 (2013년 8월 30일 출간)

『국제경제론』은 국제경제를 이해하고 국제적인 시각에서 경제문제를 사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책이다. 국제 경제학적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현실경제를 염두에 넣어 정책문제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무엇보다 전권을 통하는 체계를 먼저 세우고 가능한 한 이 체계에 입각하여 내용을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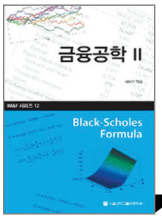
국제금융론 (제3판)



김인준, 이영섭 지음
율곡출판사 (2013년 8월 30일 출간)

『국제금융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위기가 국제금융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왔고 아울러 각국 정부의 금융정책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고 있다. IMF가 최근 국제거래와 국제금융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해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대조표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 그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금융공학 II



최병선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년 08월 30일 출간)

금융공학 시리즈의 제2권. 이 책은 금융공학의 핵심인 Black-Scholes식을 유도하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금융공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확률해석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5장으로 구성하여, Black-Scholes식을 유도하는 21가지 방법부터 가치평가식들의 관계까지 살펴본다.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



김상조, 김영식, 박창균, 최흥식, 함준호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년 11월 20일 출간)

이 책은 한국의 금융부문과 관련된 기본 통계와 제도 변화를 정리한 한국 최초의 금융백서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한국 금융구조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등 6개국의 금융구조를 세부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한국 금융제도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배경, 찬반 입장을 비교하고, 제도가 가져온 결과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



박명규, 김병연, 김병로, 정은미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년 10월 28일 출간)

'남북통합지수'(IKI)는 바로 통합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현재 한반도 통일이 어느 정도의 통합수준에 와 있는지를 경험적 자료로, 특히 지수라는 간략한 수치로 표현하고자 한 시도다. 통일이 촉진되려면 남북 간에 소통과 화해의 증진,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제도적 동질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수용성과 신뢰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적대성이 완화되는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



이영훈 지음
기파랑 (2013년 7월 15일 출간)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깊은 내면의 분열을 안고 있으며, 그것은 끊임없이 정치와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애국심으로 공유하는 국가의 역사가 아직 성립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대하는 학자의 결의는 단호하다.

이 책은 제24회 시장경제대상 출판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저자는 출간소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랑스럽게 공유할 역사를 새롭게 쓸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쓰이고 가르쳐진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해온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미시경제학 (제6판)



이준구 지음
문우사 (2013년 12월 20일 출간)

미시경제학 입문서. 제5판에서 이미 미시경제이론의 중요한 주제는 거의 망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 23개 장의 틀 안에서 부분적인 보완에 주력하게 되었다. 기본골격에 큰 변화는 없어도 이곳저곳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박스 글을 대폭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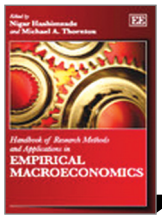
중국과 인도의 혁신과 추격



박태영, 김준연, 이근 지음
진한엠앤비 (2013년 09월 24일 출간)

『중국과 인도의 혁신과 추격』은 중국과 인도라는 신흥 거대 추격국가가 SW산업에서 성취한 기술추격의 결과에 주목한 책이다. 양국의 기술추격이 어떤 배경에서 무슨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IT강국·SW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에게 제시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and Applications in Empirical Macroeconomics



김소영 외 37인 공저, Nigar Hashimzade, Michael A. Thornton 편집
Edward Elgar (2013년 7월 30일 출간)

This comprehensive Handbook presents the current state of art in the theory and methodology of macroeconomic data analysis. It is intended as a re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ers interested in exploring new methodologies, but can also be employed as a graduate text. The Handbook concentrates on the most important issues, models and techniques for research in macroeconomics, and highlights the core methodologies and their empirical application in an accessible manner. Each chapter is largely self-contained, whilst the comprehensive introductio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key statistical concepts and methods. All of the chapters include the essential references for each topic and provide a sound guide for further reading.

신임 이재원 교수 인사말



이재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부임하게 된 신임교수 이재원입니다. 저는 2003년 위스컨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에서 수학 및 경제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5년 뒤인 2008년에는 프린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에서 크리스토퍼 심스(Christopher A. Sims) 교수님의 지도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후에는 뉴저지 주립대학 중 하나인 럿거스대학(Rutgers University at New Brunswick)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서 2013년 봄 학기까지 근무했었습니다. 럿거스대학에서는 주로 중급거시경제학(intermediate macroeconomics)과 대학원 박사과정의 거시경제학을 강의했었습니다.

프린스턴대학은 이름 그대로 "프린스턴"이라는 아담한 마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럿거스대학이 위치한 뉴브런스윅(New Brunswick)은 프린스턴과는 기차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따라서 저는 럿거스대학에 부임한 이후에도 뉴브런스윅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프린스턴에 계속 살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린스턴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10년 정도를 살게 된 셈입니다. 프린스턴은 미국에서도 아름답고 고전적인 마을로 손꼽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강산이 변할 만큼 그곳에서 살았으니 저로서는 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지내면서 정들었던 장소들, 친구들, 학생들, 그리고 동료들을 뒤로하고 떠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대학교의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 학생들과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같이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한, 고국에서 경제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에 큰 설렘을 안고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고국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느끼던 즐거움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과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연구와 더불어 강의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학입니다. 거시경제학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내리는 의사결정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합"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 주체들은 서로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각 노동자(worker)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그들이 만드는 재화(goods and services)에 따라 다릅니다. 목수와 전기기술자를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기술이 다르므로 소득 수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자들(firms)도 여러 면에서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각 생산자의 가격 경직성(degree of nominal rigidities)은 그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지 또는 어떤 산업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질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거시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노동자나 생산자들의 다양한 이질성(heterogeneity)들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최근 논문 중 하나는 이질성이 커질수록 국가 경제가 외부충격(exogenous economic shocks)이나 정책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함을 보여줍니다.

저의 또 다른 연구분야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monetary-fiscal policy interactions)과 그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균형의 불확정성(equilibrium indeterminacy)입니다.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이용되는 신케인지언모형(New Keynesian Model)은 주로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재정정책은 모형 내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특히 국가의 부채수준이 높고 정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 혹은 의지가 없는 경우)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주요 거시변수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의 제 논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의 불확정성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국가 경제가 어떻게 다양한 외부충격에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연구분야에 최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근래에 유럽과 미국의 국가부채가 갑자기 급증하게 된 상황,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금리가 0%에 근접함에 따라 통상적인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 않게 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점이 많은 거시경제학자를 이 분야에 뛰어들게 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의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듯합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곳에서 처음 하는 강의에 대한 의욕과 새로 시작할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으로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서울대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초심을 유지하기를 다짐하며 신임교수의 인사말을 마칩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경제학 및 수학 학사, 2003, 위스컨신대학교
- 경제학 석사, 2006, 프린스턴대학교
- 경제학 박사, 2008, 프린스턴대학교
- 경제학과 조교수, 2008-2013, 럿거스대학교
- 경제학부 조교수, 2013-현재, 서울대학교

나의 특별한 경험



박태호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나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1971학번으로 1975년 졸업했다. 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 위스컨신 대학에서 좋은 지도교수 덕분에 국제무역을 전공했고 1983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나는 그 후 조지타운 대학,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 국제무역 관련 강의, 연구, 정책자문 등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11년 12 월 30일 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으로 우리나라의 통상협상 및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최고위급 정무직 자리다. 외국에 나가면 통상장관으로 역할을 한다. 국제무역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휴직을 하고 곧 바로 근무를 시작했다. 전공분야의 일들이라 낯설지 않았고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의 국회비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부임한 시기는 이러한 큰 일이 마무리된 후였지만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나는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협상 개시,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시, 페루, 터키와 FTA 발효, 콜롬비아와의 FTA 최종체결,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과의 FTA 개시 등을 추진했다. 그 외에도 APEC, OECD, 다보스, G20 통상장관 회담에 참여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에도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2012년 12월 나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를 지명한 것이다. 당시 WTO 사무총장 임기가 9개월 정도 남아있어 신임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12월말까지 회원국들이 자국의 후보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세간에는 지금까지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에서 사무총장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다. 그래서 한국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에서 후보들이 나오고 다른 지역 출신 후보가 없으면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WTO가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특정 지역 출신 후보보다는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는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다른 회원국들의 후보 지명 상황을 예의주시 하였다. 처음에 가나와 케냐에서 후보를 지명했고 그 후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요르단, 인도네시아, 멕시코가 후보를 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외의 국가들도 후보를 지명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후보를 내기로 하고 나를 후보로 지명했다. 브라질이 맨 마지막에 후보를 내 총 9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순간에 후보를 낸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즉 무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이 이제는 세계무역기구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총장을 배출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WTO에는 130개가 넘는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한국인이 사무총장이 되면 한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개발경험을 개도국들과 긴밀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나는 후보로 지명되어 2013년 1월 말에 있을 정견발표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월 초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다. 통상교섭본부를 없애고 통상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15년간 존속해오면서 나름대로 정착된 통상조직이 다른 부처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직원들이 당황하였고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WTO 사무총장 후보로 해외로 캠페인을 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였다. 잠시 후보를 사퇴할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단 국내에 머물면서 정견발표 준비를 했다.

나는 1월 말 제네바에서 진행된 WTO 사무총장 후보 정견발표, 질의응답, 기자회견을 무사히 마쳤다. 정견발표를 마치고 곧바로 캠페인에 들어간 후보들과는 달리 나는 정부조직개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곧장 귀국했다. 2월 내내 국내에 머물면서 한국 주재 외국 대사들을 만나 나름대로 캠페인을 했다.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야 나는 해외 캠페인을 시작했다. 물론 조직이 없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캠페인 자체가 쉽지 않았다. 외국 정부 인사들은 한국의 통상조직개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내가 통상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다. 현직 통상장관으로서도 캠페인이 쉽지 않은데 당시 나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나는 2월 말 미국으로 가서 무역대표부를 방문하고 백악관 통상 분야 보좌역을 만나 입후보 배경과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설명했다. 나의 무역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인정하는 등 반응은 매우 좋았다. 그러나 미국 측 인사들은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형평성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넌지시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측면을 당초부터 일고 있었다. 다만 WTO가 극도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판단해서 후보를 낸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귀국한 후 본격적으로 해외 캠페인에 들어갔다. 나는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은 EU 회원국에 노력을 집중했다. 독일을 두 번 방문했고 영국, 프랑스, 폴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을 방문했다. 이어서 나는 브랏셀에 있는 EU 본부, 이집트, 르완다, 탄자니아 등을 방문하였고 WTO가 소재한 제네바에서는 여러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캠페인을 했다. 특히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 그룹, 아세안 10개국, EU 27개국 등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오찬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였다. 나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겠다고 했고 특히 세계은행 등과 함께 개도국 무역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선진국들에게는 서비스협상, 정보기술관련 상품 자유화 협상 등에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WTO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나는 마지막으로 일본, 태국, 베트남, 중국을 방문했다. 3월 23일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면서 나는 통상교섭본부장직에서 물러났고 정부는 WTO사무총장 후보로서 나를 국제경제통상대사로 임명해 공식 캠페인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었다.

4월 2일부터 1주일간 1차 투표가 진행되었다. 각 회원국들은 WTO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의장 등 3명이 앉아 있는 사무실로 예약한 시간에 찾아가 구두로 선호 후보를 밝히도록 되어 있었다. 1차 투표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4명의 선호 후보를 밝히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2차 투표에 진출할 5명의 후보를 뽑는 것이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최석영 대사가 긴박하게 연락을 취해 왔다. EU회원국 27개국이 집단 투표를 했으며 EU는 선호후보

7페이지에서 계속

〈학력 및 주요 경력〉

- 1975. 2 서울대 경제학과 졸
- 1983. 8 미국 위스콘신-매디슨大 경제학 박사
- 1997. 3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원장, 교수
- 2012.12 - 2013. 4 WTO 사무총장 후보
- 2011.12 - 2013. 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2007. 6 - 2010. 6 한국무역위원회 위원장
- 1989.11 - 1997.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부원장
- 1987. 2 - 1989. 11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1983. 9 - 1987. 2 미국 조지타운大 경제학과 조교수

학교는 문화공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연주회 관람 후기-



임현경 (2학년)

선선한 가을 날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저녁식사를 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고전음악의 오케스트라 음악회에 가는 모습을 떠올려본다. 고급 취미생활을 하는 듯한 기분에 한껏 취해서 음악 자체 또는 연주자들과 지휘자의 모습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음악회에 간다는 분위기에 더 들떠 있던 적이 많다. 하지만 작년 10월 12일에 있었던 제 9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 연주회에 참석했던 나의 모습은 등교할 때의 편안한 복장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학생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의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태였다. 익숙한 공간인 학교 문화관, 동아리 연주회 덕분에 직접 서 본 그 무대에서 연주되는 음악들은 훨씬 친숙했고, 외적인 요소들보다는 음악 그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동문 연주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연주되었다.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 고전 음악과 현대 음악이 한 자리에서 연주되었다. 보통의 연주회 프로그램은 특정 음악가의 음악이던지 특정 장르의 음악, 이를테면 고전 음악이라면 고전 음악,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라면 전통 음악만으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문 연주회에서는 시공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음악만의 독특한 특색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듣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각각의 연주는 고유의 특색을 뽐내면서도 함께 어우러졌다.

특히나 가장 인상 깊었던 곡은 『'Die Insel schwimmt...' for Piano&Percussion』 이다.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실황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솔직한 이야기로는 매우 난해했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이 초연되었을 때 왜 사람들이 난동을 피웠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여백이 주는 긴장감과 한국적인 느낌을 살린 중후한 느낌의 타악기 소리가 매력적이었다. 이어서 연주된 F. Mendelssohn의 『Sinfonia no.10 in b minor』는 매우 상반된 이미지였다.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의 소리로 나아가면서 울림이 있는 화음을 연주했다. 앞서 연주된 현대음악에 비해 훨씬 구성이 조밀하고 퍼즐을 맞춘 듯이 각 파트의 소리가 짜여져 있었다. G. Rossini의 『Willian Tell Overture for 16 Hands』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했다. 피아노 여러 대로 함께하는 연주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두 대도 아니고 자그마치 4대의 피아노가 사용하여 8명의 연주자들이 16개의 손으로 연주했다. 한, 두 명의 연주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음색과 화음이 아름다웠다.

이 연주회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색다른 경험은 우리나라의 전통 실내악을 직접 들어본 것이다. '편안함이 두루 미친다' 는 뜻을 가진 '향념지곡' 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연주되었다. 사실 전통 음악은 서양 음악보다도 실황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전통 음악이나 교과서에서 말로 접한 내용들, 퓨전 음악에서 사용한 전통악기 소리가 그 동안 경험했던 전통 음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연주회에서는 전통적이 궁중음악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매우 인상 깊었다. 연주자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부터 무대 장치나 연주자의 배치 등이 흥미로웠다.

이어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가장 유명한 판소리 중 하나인 춘향가 中 '사랑가' 를 노래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대목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공연자들은 자신들이 관객들과 같은 장소에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관객들을 부르기도 하고 극중 인물에게



관객들을 보라는 대사를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관객인 나로 하여금 판소리 공연에 더욱 빠져들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건용 씨 작곡의 『저녁노래Ⅳ』는 가야금, 현금과 비슷한 종류의 전통 악기들로 연주되었다. 전통악기로 연주했지만 현대적인 선율과 감각, 조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이 음악의 특징이다. 따라서 전통 음악이라는 느낌 보다는 퓨전 음악과 같은 느낌이 더 강했다. 울림이 있는 악기 소리들은 상쾌하고 맑은 느낌을 주었다. 현금 특유의 울림 소리가 특히 돋보이는 곡이었다.

평소에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음악에 대해 이렇다 할 주관적 감상과 평가를 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못했다. 음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는 생각과 음악은 전문가들만이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깊이 있고 솔직한 감상에 방해만 되었다. 음악회에서 진정으로 음악을 향유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음악을 감상하는 코스프레만 한 격이다. 하지만 이번 동문 연주회에서는 학교에서 열린 음악회인 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다.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값비싼 입장료를 내고 관람할 때보다 오히려 음악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고, 연주를 감상하는 일이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다. 앞으로 문화관, 예술관 콘서트 홀, 모아(MOA) 미술관 등 학교 내부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잘 활용해서 쉽고 저렴하게 양질의 공연, 전시회를 관람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겠다.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즉 EU 대표가 혼자 가서 지지후보를 밝히면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27표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27표를 지고 시작하는 게임에 참가한 것과 같다. 투표결과 다행히도 내가 5 명의 후보에 들어 살아남았다. 뉴질랜드, 케냐, 가나, 코스타리카 후보가 탈락했다.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EU의 지지를 받지 않고 1차 투표를 통과한 유일한 후보가 된 셈이다. EU 회원국들이 많이 놀랐다고 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에서 많은 표가 나온 것이다. 아마도 미국, 중국, 일본도 1차 투표 때 한국을 지지한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독일과 제네바를 방문했다. 제네바에서는 많은 대사들을 만났고 귀국길에는 거의 모든 EU 회원국 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다.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옷 만 갈아입고 곧장 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날아갔다. 여러 통상장관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외교통상부의 모든 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캠페인을 독려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4월 16일부터 1주일간 계속된 2차 투표에서 나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EU가 또 다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하고 멕시코와 브라질 후보를 지지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개도국 지지를 얻은 브라질 후보가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약 5개월에 걸친 선거 절차가 종료되는 순간이었다.

많은 국내외 지인들이 지역적 안배가 우선하였고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무시된 선거라고 나를 위로했다. 아마도 애초부터 우려했듯이 국제기구의 수장 직에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이 이미 있어서 EU회원국들이 끝까지 한국 후보를 배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 한국 후보의 열정과 비전을 피력했다고 자부한다. 지금까지 국제무역 분야에 전념해 온 내가 통상교섭본부장직을 맡아 일할 수 있었고 나아가 WTO 사무총장 선거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WTO 선거과정에서 얻은 특별한 경험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하다.

중국의 옛 도읍지 – 북경 남경 장안



마오주칭
MaoZhuqing (석사)

제가 한국에 온지도 거의 6년이 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주에 1년간 있었고, 이후 대구에서 3년을 지내다 서울에 올라와 대학원에서 2년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주에 1년 있다가 대구에 갔습니다. 3년 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학교에서 2년을 지냈습니다. 3개의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니 같은 한국에서도 역사와 문화, 언어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역시 56개의 민족이 있고,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전쟁과 통합, 분열을 겪어 온 덕분에 다양한 지역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에도 유명한 중국의 옛 도읍지인 북경, 남경, 장안(서안)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자장면과 북경 요리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화요리는 자장면일 것입니다. 북경에서 맛볼 수 있는 자장면은 한국과 달리 달지 않고 짠 맛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의 떡볶이와 비슷하게 자장면을 간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자장면을 비롯한 북경식 간식입니다. 북경의 간식은 보통 사람들에게 팔기보다는 갖가지 산해진미를 즐기는 상류층에게 어필하기 위하여 특이한 맛을 가지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 대표적인 북경요리는 북경식 샤브샤브(원나라), 북경 오리(명나라), 양시에즈(청나라)가 있습니다. 즉, 북경에서는 주로 고기를 이용한 요리가 유명합니다. 북경은 원, 명, 청의 도읍으로, 특히 원나라와 청나라의 통치계급은 유목민족이어서 양고기와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에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되었던 청나라의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건축, 예술, 민담, 사람들의 습관에도 청나라의 영향이 남아있다. 북경은 자금성을 중심으로 사각형으로 확장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 서울이 그러하듯이 도시 안에서 산과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류의 도시 남경

남경 풍수가 좋은 도시로서 특히 양자강이 지납니다. 남경은 과거 6개의 나라가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모두 한족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한족의 도읍이라고도 합니다. LG전자의 중국지사가 남경에 있는 덕분에 한국 사람들에게도 남경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남경 오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남경에서는 오리선지당면탕이라는 음식이 유명합니다. 저는 남경의 간식 중에서 매화떡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달콤한 매화떡을 먹는 순간에는 아주 행복해집니다.

매화떡을 비롯한 남경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는 부자묘입니다. 부자묘는 옛날 유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르는 곳으로 양자강의 지류를 옆에 끼고 있습니다. 예기들이 배를 타고 각종 토론을 나누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았다고 합니다. 남경은 훌륭한 유생들을 많이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예기와 유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땅 속에 산 속에

그러나 남경의 예기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춤과 음악에 능했던 미인이 바로 장안에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양귀비가 그 주인공으로, 당나라 현종은 아들의 부인이었던 양귀비를 자신에게 불러들였고 11년 동안 다른 여인에게 한눈파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양귀비와 현종이 목욕하던 곳은 장안에 있는 천연 온천인데 현재는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지 밑에서 진시황의 목욕지가 발견되었다고 하니 장안은 많은 비밀을 간직한 도시인 듯합니다. 13개 나라가 도읍으로 삼았던 곳인 만큼 땅 속에 산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이제까지 발견된 여러 문화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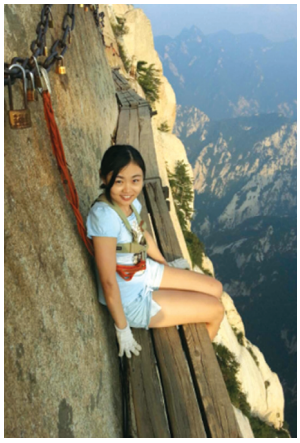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안은 서안이라 불리며 중국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2013년에 삼성전자가 서안에 공장을 건설하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북경은 청나라의 영향이 크고 남경은 한족의 영향이 크지만, 장안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족이라 불리는 소수민족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비단길의 시작점이었던 덕분에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사람과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유명한 〈서유기〉는 현장법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중국과 남아시아의 불교문화 교류를 상징합니다. 현장법사는 중국으로 돌아와 장안에서 불교를 전파했으며, 이를 비롯한 여러 전통으로 인해 장안은 중국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교 문화도 많이 남아있는데, 장안 근처에 있는 화산이라는 산이 유명합니다. 무협지에 등장하는 화산파의 근거지로서 도교 사찰이 유명합니다. 화산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5개의 산(5악)중 하나로, 올라가는 길이 위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는 2160미터 정도인데, 첨부한 사진은 화산의 최고봉 바로 아래에 있는 장공잔도에서 찍은 것입니다. 중국 문화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황하 역시 장안을 지납니다. 황하와 양자강의 모습에서 장안과 남경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웃나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중국의 다양한 지역과 도시,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SFERS (www.sfers.com)

1. 동아리 및 지도교수님 소개

· 동아리 소개



SFERS는 SNU Financial & Economic Research Seminar(서울대학교 금융 & 경제 연구 세미나)의 약자이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속 경제 금융 학술동아리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16일에 경제현상 연구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어오고 있는 SFERS는, 매 학기마다 각종 경제이론과 지식들을 기반으로 현실경제의 여러 현안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SFERS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회원들 간의 학술 교류를 통해 금융 및 경제와 관련한 지식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금융 및 경제 전문가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제 간, 선후배간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의 휴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SFERS는 경제학부 뿐 만 아니라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 소속의 회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활동회원들 모두가 경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회원들은 각종 공모전과 경시대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한국은행에서 주최한 통화정책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동부문화재단에서 주최한 대학생금융제안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3학기로 되어있는 의무 활동 규정을 이수한 졸업회원들은, 대학원 진학 및 유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정부기관, 금융권 공기업 및 사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SFERS는 학기 중에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 외에도 일본 및 홍콩 등지의 유수 대학들과 해외연합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홍콩 과학기술대학, 동경대학 Yoshikawa 세미나와 연합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11월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경대학,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히토쓰바시대학 등 여덟 개의 학교에서 참여하는 한국 · 일본 학술 세미나에도 서울대학교 대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지도교수님 소개



SFERS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황윤재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가을학기부터 SFERS의 지도를 맡아주시고 계신 황윤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계량경제학을 연구하고 계시며, SFER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움과 조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2. 동아리 활동

· 정기 세미나



SFERS의 회원들은 매 학기 지원을 통해 팀을 결성하며, 팀별로 금융 및 경제와 관련한 주제를 정해 한 학기 동안 연구조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얻은 연구결과를 학기 중 두 번에 걸친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미나는 SFERS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회원들이 각 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각 팀별 주제들에 관한 배경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연구에 사용된 경제학적 직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사용한 각종 경제 분석 기법들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연구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정기 세미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수님과 회원들로부터의 질의응답 시간과 사후 리뷰세션 등을 통해 더욱 발전된 연구방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정기 세미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대외 세미나



SFERS는 정기 세미나 이외에 대외적으로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국내대학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등지의 여러 대학들과 연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경대학,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히토쓰바시대학 등 여덟 개의 학교가 참여하는 한국 · 일본 학술 세미나에 서울대학교 대표로 참가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참여하는 연합 세미나와 홍콩 과학기술대학, 동경대학 Yoshikawa 세미나와의 연합 세미나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은 새로운 학문적 자극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참가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 커리어 멘토링, 선배들과의 만남 및 홈커밍데이

SFERS를 이수한 졸업회원들은 주로 대학원, 해외유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금융권 공 · 사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멘토링은 이러한 휴먼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재 활동회원들이 이수한 졸업회원들로부터 자신의 진로를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각각 한 번씩 활동회원들과 이수한 졸업회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 LDT, 소풍 및 체육대회

SFERS에서는 매 학기마다 MT 형식의 LDT(Leadership Development Training)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활동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소풍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각 팀 간의 팀워크를 증진하고 활동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신입회원 가입 안내

SFERS에서는 매 학기마다 신입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학부에 3학기 이상 재학하였고 앞으로 3학기 이상 SFERS에서 활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동아리 홈페이지(www.sfers.com)이나 sfers.recruiting@gmail.com 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 · 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 (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도 하반기 학술활동

BK21플러스 사업단은 2013년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플러스/김태성기념세미나 16회
- 경제사 워크샵 10회
- 장단기연수지원 단기 1회
- 공동 주관 세미나 1회

BK21플러스/김태성기념세미나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Tilman Borgers (University of Michigan)
Flexibility and Robustness in Mechanism Design

Duygu Yengin (University of Adelaide)
Axiomatizing Political Philosophy of Distributive Justice: Equivalence of No-envy and Egalitarian-equivalence with Welfare-egalitarianism

서경원 (KAIST)
Bayesian Inference and Non-Bayesian Prediction and Choice: Foundations and an Application to Entry Games with Multiple Equilibria

Satoru Takahashi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ruthful Equilibria in Dynamic Bayesian Games

Chiaki Moriguchi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Taxation and Public Goods Provision in China and Japan before 1850

Khairy Tourk (Stuart School of Business,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n a Multipolar World, are FTAs Necessarily Inferior to a Trading System under the WTO?

Andrei Yakovlev (Higher School of Economics)
In a Multipolar World, are FTAs Necessarily Inferior to a Trading System under the WTO?

김재광 (Iowa State University)
Propensity-score-adjustment Method for Nonignorable Nonresponse

Klaus Abbink (Monash University)
How to Choose Your Victim

김상현 (University of East Anglia)
On the Optimal Social Contract: Agency Costs of Self-Government

Masaki Aoyagi (Osaka University)
Strategic Obscurity in the Forecasting of Disasters

우석진 (명지대학교)
When Rosenberg Meets Heckman: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Academic Performance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위다인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n Tokyo)
Legal Entitlement of Marriage Immigrants, Education, and Bargaining Power in Households

이수형 (University of Maryland), 감지혜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College Major and Labor Market Outcomes: Evidence from Korea

경제사 워크샵

양동휴 (서울대), 김종훈 (서울대 석사과정)
Caricature와 경제사

이영훈 (서울대)
『대한민국역사』의 주요 논리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식민지기 어업권 제도의 존재형태와 특질: 『官報』 면허어업권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김성남 (서울대 박사과정)
식민지기 일본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제적부』및『토지대장』을 이용한 접근

홍제환 (서울대 박사 수료)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정책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에너지혁명기의 일본석탄산업의 노동운동 – 석탄정책전환투쟁을 중심으로?

홍석철 (서강대)
Declining Birth Weight Puzzle

박경로 (경북대)
'제도와 성장'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한 단상

문지영 (숙명여대)
프랑스 고등교육체제의 특수성과 경영자 문화

BK21플러스 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

단기연수지원 (논문발표지원)

이선영 (박사과정생) 프랑스/파리
Bubbles and Crashes in Asset Markets

BK21플러스 사업단 공동주관 세미나

발전, 체제, 정치경제학의 최근 동향과 한국사회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여

2013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772명 중 157명(전액 장학금 71명), 대학원생 40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향상 장학금을 통해 38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2013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2013년 8월 28일 경제학부 3명의 교수가 프레스센터에서 32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2013년 제12회 김태성 기념장학생 선정

2013년 12월 17일 경제학부 소회의실에서 김태성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진용(박사과정), 문지웅, 권순우(석사과정), 지용환(학사과정)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경제학부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우수한 학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김태성 논문 장학금을 1998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2013년 제11회 김태성 기념논문상

경제학부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재학생들이 경제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김태성 기념논문상을 2003년 제정하여 현상공모하고 있다. 2013년도에서는 김태훈 군의 'Self-employment Decision in Retirement'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교무 및 학생활동

2013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3년도 후기 졸업식이 8월 29일(목) 10시에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6명의 박사, 18명의 석사, 51명의 학사(최우등 12명, 우등 23명)를 배출하였다.

2014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3학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5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5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새로 신설된 석박통합과정을 통해 2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3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3년 12월 23일 ~ 2014년 1월 24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 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경제원론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통계학', '경제수학' '정치경제학입문' '주식련ㅁ퓐파생금융상품2: 제도' 및 '계량경제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조교 인사 이동

고윤정, 이병욱 조교가 퇴직하고 박형주, 손선혁 조교가 신규임용 되었다. 박형주 조교는 교수지원 업무를, 손선혁 조교는 입시업무를 담당한다.

'經友의 밤' 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학생자치 동아리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주최로 2013년 11월 7일 '경우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경제학부 소속의 교수, 학생 및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사제 간, 선후배 간,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매년 2학기(11월 중)에 경제학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장단을 포함한 교수, 재학생 및 졸업생 150여명이 참석하여 經友의 밤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3학년도 2학기 영어강의개설 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박지형	Principles of Economics 1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이 근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Economy (Introduction to Economics)
주병기	Advanced Microeconomic Theory
Jihong Lee	Game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pics in Microeconomics
Xifang Sun	Microeconomics Studies in Applied Financial Economics
Oyvind Thomassen	Exercises in Economics 2 Advanced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Gong Chi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2013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후기 모집

경제학부는 2013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3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총 9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석사 1명, 박사 1명이 선발되었다.

버클리大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 (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3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5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이 중 2013년 2학기에 2명이 파견되었고 2014년 1학기에 3명이 파견 예정이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大(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大 경제학과의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ASP 25기 동문** 10,000,000원 (학술)
- **상대 향상장학회** 10,000,000원 (학술)
- **이기석** (시즈웹 대표, 학부모) 1,000,000원 (장학)
- **이필상** (경제학부 초빙교수) 5,000,000원 (장학)
- **이재율** (동문) 1,000,000원 (장학)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 mail : kang97@snu.ac.kr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제27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80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자들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방향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과정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① 모집인원 : 40 명 내외

②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5) 기업의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③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④ 모집횟수 : 연 2회 (봄학기 모집 : 1~2월, 가을학기 모집 : 7~8월)

⑤ 이수요건 :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⑥ 모집안내 – **전화** : (02) 880-5432 – **Fax** : (02) 875-9867 – **email** : asp@snu.ac.kr – **Home Page** : http://ier.snu.ac.kr – **주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1. **강문호** KB국민은행 집행본부장
2. **김관영** POSCO 상무
3. **김성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4. **김연수** 금융결제원 전자인증부 부장
5. **김영학** 휴비스 상무(재무지원실장)
6. **김재룡**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실장
7. **김재훈** 한국기업평가(주) 사업가치평가본부 본부장
8.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9. **남대희** 삼성생명 상무
10. **노태성** NICE 신용평가(주) 금융평가본부 본부장
11. **손병환** 농협은행 서울대지점 지점장
12. **신영철**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장
13. **오세철** 삼성물산(주) 전무
14. **오창한** 외한은행 부행장
15. **오혁수** IBK기업은행 자금부장
16. **유환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전문위원
17. **윤상규** 신한은행 본부장
18. **임종필** SK하이닉스 본부장/상무
19. **장선호** 삼성증권 상무
20.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1. **조양익** 예금보험공사 자금2부장
22. **조용만** ㈜두산 전무
23. **조인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스크관리실장
24. **최성욱** ㈜파라다이스 전무
25. **최창영** 법무법인(유) 동인 파트너 변호사
26. **최철호** KBS인재개발원장
27. **허 장**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28. **현종도** 딜로이트컨설팅 상무이사
29. **황해연** ㈜카페베네 전무



〈ASP 26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학부 홈페이지에는 졸업생을 위한 학번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mail: **snu97113@snu.ac.kr** 전화: **02-880-6359** 홈페이지: **http://econ.snu.ac.kr**